



國產 사카린등 내년 美 GSP서 除外

國產 사카린등 3개품목이 내년도 미국의 일관특혜관세제도(GSP) 수혜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최근 관제당국에 의하면 미국은 얼마전 '85년도 GSP수혜대상품목 가운데 재검토 대상품목을 발표하면서 이들 품목을 수혜정지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이의 수정을 위한 청문회를 오는 10월 2일 워싱턴에서 열 예정이며 이에 따른 증언신청 및 자료제출을 오는 9월 27일까지 접수한다.

국산 사카린은 '83년도에 3,200% 가량을 29개국으로 수출했으며 이중 미국으로 수출된 양은 전체 물량의 20% 이상인 약 680%으로서 금액으로는 약 350만달러에 이른다.

小麥輸出國으로 발돋움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부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식량자급정책의 일환으로 자국의 농업은행을 통해 각종 영

농자금을 농민에게 지원하여 농산물의 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당국에 의하면 이 같은 식량증산정책으로 인해 '83년에 약 60만톤의 소맥을 생산했다고 밝히고 이런 추세로 보아 금년에는 소맥의 자급이 가능해 지고 85년 이후부터는 자국산 소맥의 수출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사우디아라비아 소맥재배 성공은 사우디정부가 중앙농업은행을 통해 농민들에게 파격적인 막대한 영농자금을 지원해 주었고 영농방식을 기계화 및 과학화하고 당국이 소맥가격을 적정하게 관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총 투자액의 40~50%를 소맥생산에 투자하여 농민들을 지원해 왔다는 것인데 아무튼 열사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소맥을 수출까지 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美國, 카페인없는 커피판매에 심혈

미국의 커피업체는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판매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약 45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미국의 커피시장에서 무카페인 커피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약하지만 미국의 국민 1인당 커피 소비량이 약 20여년 동안 매년 감소추세를 보인데 반하여 무카페인 커피소비는 매년 10%의 왕성한 성장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커피업체의 선두주자로서 시장의 38%를 점유하고 있는 General Foods사는 맥스웰 하우스 및 Yuban 상표로 무카페인 커피를 내고 있으며 제 2위에 랭크되어 있는 Nescafe사는 맛의 세분화 또는 맛의 스펙트럼화라는 전

락을 짜고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무카페인 커피는 대부분 인스턴트 타입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알커피형이 잠자는 시장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한편 연방커피협회는 침체되고 있는 커피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커피는 당신에게 안락을 선사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1천 6백만불 규모의 텔레비전 광고를 실시하는 등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中共, 농민에게 營農資金 융자

중공은 농부들에게 농산물 판매를 장려함과 아울러 영농자금을 은행에서 융자받도록 허용함으로써 농촌경제 자유화에 또 다른 일보를 내디뎠다고 중공 관영 신화사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신화사통신은 중공정부가 정부 및 집단농장들의 판매 및 유통조직을 완비하기 위해 농부들에게 농산물의 수송 및 판매를 증진하도록 장려해 왔으며, 이어 농부들은 급년 상반기에 총 160억 9천만달러를 대출받았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 23.5%가 늘어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통신사는 정부의 농산물 유통통제를 받고 있는 21개 품목중 쇠고기, 양고기, 달걀, 양모등을 포함한 9개 품목은 이미 매매자유화가 이루어졌거나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母乳먹이도록 法으로 規定

방글라데시 정부는 최근 유아에게는 모유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주장에 따라 분유의 사용량을 줄이는 대신 모유를 권장하는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엄격하여 이를 어겼을 경우, 최고 2년의 징역형까지도 받게 된다고 하는데 이

같은 조치가 실은 개인소득이 120달러(9만 6천원)의 빈민국인 방글라데시로서는 외국산 분유를 먹인다는 것이 험겨워서 나온 것이라고 전해진다.

조작이 간편한 곡물 水分測定機

영국의 프로티미터社は 휴대가 용이하고 조작이 간편한 곡물 수분측정기를 개발했다.

팜미터(Farm meter)로 불리는 이 곡물 수분측정기는 곡물을 갈아서 가루를 내거나 무게를 달 필요가 없이 곡물을 試料용기에 넣고 버튼을 누르면 수분함량이 즉시 나타나며 구입가격이 싸고 측정속도가 빨라 능률적인 것이 특징이다.

이 수분측정기는 온도가 自動補正되므로 곡물의 온도와 관계없이 수분함량이 정확하게 측정되며 설계자체가 단순해 마멸되거나 분실될 만한 부품이 없는 것도 장점이다.

2,500달러로 農場主가 된다

농업을 경영하고 싶지만 농사일은 싫은 사람에게 꼭 알맞은 새로운 상업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다.

「페닉스·팜랜드·매니지먼트」社가 시작한 “農場基金計劃”이 그것인데 이는 농장주가 되고 싶은 사람으로부터 2,500달러(약 200만원)씩 출자토록하여 총액 550만달러(약 44억원)로 일리노이, 인디아나, 오하이오주 등지에서 30~40에이커의 옥수수나 콩밭을 구입한다.

매일 들보는 농사일은 소재지의 농민이 담당하며 돈을 낸 출자자는 농지를 농민에게 대여하는 형태가 된다.

농민은 농지를 대여받을 때와 수확할 때의 2회에 걸쳐 사용료를 지불한다. 출자자의 부담은 출자시 내는 2,500달러와 부동산에 대한

세금뿐이다.

만약 농민측이 계약을 이행치 않으면 농지 대여를 중지하거나 농지를 회수하는 등 토지의 관리, 수확, 판매와 같은 종합적인 관리를 대행해 주고 있다.

食生活改善으로

한마을 心臟질환등 격감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이탈리아에서 심장병 발병률과 콜레스테롤치가 가장 높은 지역의 하나인 「프리올리」지방의 작은 마을 「마르티코냐」의 주민 5천 5백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식생활개선 캠페인을 벌인 결과 사망률이 크게 감소하고 관상동맥에 관련된 위험도가 반으로 줄었으며 콜레스테롤 평균치와 혈압이 현저하게 떨어졌는가 하면 흡연자도 60%에서 42%로 적어 졌다는 것이다.

이곳 주민들은 동물성지방과 달걀 노른자위를 유난히 즐겨 먹었으며 햄과 버터, 백포도주, 그라파와酒등을 지나칠 정도로 먹었는데 식생활개선 캠페인팀은 이들에게 수시로 강연회를 열고 요리강습을 실시하면서 안내책자를 내는등 계몽과 홍보에 힘쓰는 한편 정기적인 검진을 해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는 것이다.

가령 주민들이 항상 먹던 것이라도 조리방법을 달리하든가, 튀김요리를 만들 때에도 버터 대신 식용유를 쓰게 한다든가 해서 조금씩 식습관을 바꿔 나갔다. 한편 인근에 세워진 비스킷공장에서는 지방과 쇼트를 줄이고 섬유질과 천연糖의 함유량을 높인 「새로운 개념의 비스킷」을 만들어 「좋은 심장」이라는 상표를 붙여 팔았다.

금연과 체조를 권하는 포스터를 곳곳에 붙였고 구릉지대에는 4km코스의 「생태학적 산책로」를 마련했으며 40~59세까지의 이른 바

성인병 위험집단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검진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현재 WHO 주관으로 이같은 식생활개선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곳은 핀란드의 「카펠리아」지방을 비롯, 유럽에 16개 지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테리아 自動調査機 개발

박테리아의 숫자를 손으로 직접 파악하던 것을 자동으로 세밀히 조사할 수 있는 기계가 덴마크에서 개발되었다.

이 기계는 농장에서 1년간 실험을 거친 것으로 축산업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의학, 약학, 식품과 다른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가져다 주는 이 기계는 박테리아 숫자파악에 인간의 실수를 배제해 줄 수 있어 아주 효과적이다.

한 샘플에 걸리는 시간은 6분이며 시간당으로는 70여개의 샘플을 처리할 수 있다.

生産성이 높은 소(牛) 飼育方法 실험

호주의 농경학자들은 소들이 먹는 풀이나 방목등의 사육방법에 대한 여러가지 실험을 통해 소들의 생산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목장과 동물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생산성 증가를 위한 몇가지 접근방법을 시도하고 있는데 첫째는 현재의 방목시스템의 개선, 둘째 여름철의 방목과 겨울풀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 셋째는 소들이 먹을 곡식을 재배하여 그것을 먹이로 주는 방법등을 실험하고 있다.

또한 목장 농부들이 다량먹이 체계를 고려해 연중 의양간등에 풀을 신선하게 저장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다.